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 국가어업지도선 투입한다

- 해수부, 4,500톤급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국가어업지도선 취항
- 해양주권 수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원거리 현장 대응 역량 대폭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천재수)는 12월 5일(금) 부산 우암부두(부산 남구 소재)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추었고, 10,000해리(1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하여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하여 동해퇴, 한·중·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수역 등 원거리 해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와 어업인 안전 조업 지원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년 2월에는 동일한 4,500톤급 신조선 1척(무궁화 43호)이 추가로 취항할 예정으로,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중심의 원거리 대응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노후된 국가어업지도선을 친환경 추진체계를 적용한 대형 선박으로 단계적으로 대체하여 어업 현장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 어업인의 생업 터전인 바다에서 어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해양주권을 수호하는 바다의 수호자”라며, “앞으로도 국가어업지도선의 대형화와 원거리 현장 대응력 강화로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정부는 어업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사고 예방과 긴급구조 체계, 조업 안전 지도 등을 강화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바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0-5560)
<총괄>	지도교섭과	담당자	사무관	강원진 (044-200-5563)
<행사>	동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정길수 (051-410-1005)
	어업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김영호 (051-410-1090)
	서해어업관리단	책임자	과 장	이혜옥 (061-240-7903)
	어업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김호원 (061-240-7930)

참고 1 하이브리드 대체건조 국가어업지도선 현황

□ 45백톤급 3척(무궁화41 · 42 · 43호)



건조현황

사업비/기간	1,380억원 / 2022.07.20. ~ 2025.12.10.
조선소/감리사	(주)삼원중공업(전북 군산) / (주)한국해사기술
총톤수/승무정원	4,513톤 / 40명(승무원 35명, 기타 5명)
주요치수(m)	길이 106.50 x 너비 16.80 x 깊이 8.60 x 흘수 5.300
주기관(최대속력)	3,000kW X 2대(18.0노트), 경유 + LNG 이중연료 엔진
특수장비	1012m급 고속단정 각 1대(40노트), 방수포 2조, 단정용 데버트 2조 등

참고 2 국가어업지도선 사진



LNG 추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1호(45백톤급)



LNG 추진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42호(45백톤급)